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 분석: 2006년과 2011년 비교*

Asset-Liability Analysis of Baby-Boomer Households:
Comparison of year 2006 and 2011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소비자학과
부 교수 차경욱**

Dep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
Associate Professor Cha, Kyung-Wook

〈목 차〉

I. 서론	IV. 연구결과 및 해석
II. 선행연구 고찰	V. 결론 및 제언
III. 연구방법	참고문헌

〈Abstract〉

This study gives an account of the state of baby-boomer households in regard to assets and liabilities utilizing the 2006 Household Asset Survey and the 2011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Using the data gathered from each year, this study examined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ho had each type of asset and liability, and the amount of them. This study also compared the amount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baby-boomer households with those of non baby-boomer households in 2006 and 2011 respectively.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amount of change and composition ratio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baby-boomer households between 2006 and 2011. Selected financial ratios were also presented for both year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average asset amount for baby-boomer households was approximately 296 million in 2006 and 392 million in 2011. Of total assets, 78% and 76.5% were real assets in 2006 and 2011 respectively. The average financial assets of 2006 baby-boomer households were approximately 66 thousand and the average amount of debt was 42 thousand. For 2011 baby-boomer households, the

* 이 논문은 2008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주저자, 교신저자: 차경욱 (kwcha@sungshin.ac.kr)

average amount of financial assets was 92 thousand and the average amount of debt was 73 thousand . Results from the 2011 survey showed that baby-boomer households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total assets, total debt, and net worth than non baby-boomer households. The proportion of savings, saving insurance, stocks, and mutual fund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baby-boomer households than non baby-boomer households in 2011. In regard to financial ratios, the emergency fund index and debt burden index were appropriate to the guidelines of asset quality, although the propensity to investment indexes were not.

Key Words : 베이비붐세대(baby-boomer), 자산부채상태표(asset-liability statement), 재무비율(financial ratio), 가계자산조사(Household Asset Survey), 가계금융조사(Survey of Household Finances)

I. 서론

경제성장과 산업화, 민주화의 주역으로 사회, 경제, 정치 전반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해 온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는 2010년 현재 약 712.5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5% 가량을 차지한다. 이들은 198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풍족한 소비생활을 누려왔고, 정치, 경제의 국제화,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화 등을 몸소 체험했다. 또한 인구구조, 사회 환경의 변화와 함께 부모세대와 자녀세대 사이에서 가족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생이 55세가 된 2010년부터 은퇴를 맞이하고 있다. 베이비붐세대에 속하는 임금근로자 311만 명 중 반 이상이 2015년 내에 퇴직하고, 2020년 까지 본격적인 은퇴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머니투데이, 2012).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사회 안전망이 부족한 상황에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그들 개인 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심각하고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다. 개인적 차원에서 보면, 미자발적 조기퇴직, 고용불안 심화로 인한 근로수명 단축,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후기간의 증가, 자녀 세대의 부양을 기대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미흡한 노후보장제도, 자녀양육과 교육에 전념하느라 노후준비가 턱없이 부족한 현실 등이 그들의 노후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노동생산성 감소, 기업경쟁력 약화, 경제성장률 저하를 야기하고, 조세수입과 사회보장 기여금 수입 감소, 사회보장 재정지출 증가와 맞물려 정부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 중 10년 이상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해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인구는 34% 정도에 불과하다(연합뉴스, 2012). 나머지 500만 명에 가까운 베이비붐세대는 경제적 부담을 크게 느낄 것이며,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등 부동산을 처분하여 자산시장의 구조 변화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자산시장붕괴가설은 베이비붐세대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비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자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한다. 10년 앞서 베이비붐세대가 출현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도 베이비붐세대의 은퇴와 더불어 자산 시장이 큰 변화를 겪게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일생에 걸쳐 소비의 흐름은 완만한데 반해,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장년기에 정점에 이르고 은퇴 이후 급격히 하락하므로, 개인이나 가계는 중·장년기에 축적한 부를 은퇴 이후에 소비하며 살아가게 된다(Bryant, 1990). 현재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는 생애주기 상 소득과 자산 축적이 극대화되는 정점 전후에 있다. 그러나 베이비붐세대가 그동안 축적한 자산으로 노후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지속화된 경제 불황과 고용불안, 저금리 기조로 인해 그동안 자산 축적이 쉽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시장으로 인해 가계 자산구조에서도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또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 것에 반해 개인적, 사회적으로 노후준비가 부족한 현실이기 때문에 베이비붐세대가 어떻게 은퇴를 맞이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정착할 것인가의 일련의 과정은 개인과 국가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이자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2006년과 2011년 중·장년기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비교를 통해,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006년 베이비붐세대는 43세~51세로 생애주기 상 중년기에 해당하며, 소득 뿐 아니라 지출도 많고 자산축적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시기이다. 5년 후인 2011년은 베이비붐세대가 48세~56세로 장년기에 이르고 은퇴를 막 시작하는 시기로 자산축적이 최대화되고,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자산을 어떻게 소비할 것인가가 준비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과 2011년 각 년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를 항목별 보유

율과 보유액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베이비붐세대 아닌 가계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산·부채 항목별 보유액, 증감액과 구성비를 비교하고, 주요 재무비율을 제시하여 재무상태를 평가,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베이비붐세대의 자산·부채 보유구조와 규모가 노후생활을 준비하기에 적절 한지, 은퇴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가계의 자산·부채상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는지에 대한 답을 구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은퇴 후 재무 상태를 예측하고 대비하며, 나아가 자산시장 구조의 변화를 예측하고 전망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특성

베이비붐(baby-boom)은 자녀 출산을 원하는 공통적 사회 경향으로 인해 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대체로 전쟁이나 불경기가 끝난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롭고 안정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미국에서는 제 2차 세계대전 후 1946년~1964년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라고 한다. 단카이(덩어리)세대라고 불리는 일본의 베이비붐세대는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1947~1949년 3년 사이에 태어난 집단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는 일반적으로 한국전쟁 직후 1955년~1963년에 걸쳐 9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방하남 외(2010)는 1955년부터 출산율이 급증하였고, 산아제한정책의 도입

으로 1964년 이후 출산율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함인희(2004)는 한국전쟁 복구기인 1955~1961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로 규정했고, 허은정과 김우성(2003)은 높은 출산율 뿐 아니라, 이들 집단이 청소년기에 유신시대를 경험하고 독재정권에 대항하여 정치 민주화에 앞장섰던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고려하여 1955년~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세대로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선행연구에 따라 출생연도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베이비붐세대는 전쟁 직후 태어나서 경제성장과 민주화라는 사회적, 역사적 경험을 공유해 온 집단이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차성란, 2012).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의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정성호, 2006; 차성란, 2010; 최재석, 2009, 탁석산, 2006)들은 베이비붐세대를 중간세대 또는 끼인 세대라고 표현한다. 경제적으로는 전쟁 후의 빈곤부터 소득 2만 달러 시대의 오늘날까지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경험했고, 정치적으로는 민주화의 전·후를 경험했으며, 가치관 측면에서는 전통적 가족가치와 현대적 개인주의 가치를 모두 경험한 중간세대라는 의미이다. 또한 노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나, 자녀로부터의 부양은 기대할 수 없는 혹은 기대하지 않는 끼인 세대라는 것이다. 2008년과 2009년 사회조사 결과 중 베이비붐세대의 특징을 부문별로 분석한 통계청(2010)의 보고서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의 약 70%는 부모에게 생활비를 제공하고 있었고, 90%는 자녀의 결혼준비 비용을, 99%는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당연히 지원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이처럼 베이비붐세대는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 양육과 교육에 투자하느라 본인의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였으나, 스스로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2007년 하나은행과 한국궐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40~49세의 조

사대상자 중 59%는 은퇴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비에 대한 부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녀교육비 때문에 은퇴준비를 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73.3%는 자녀교육비를 줄일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은 가장 좋은 은퇴준비 방법으로 은행예금과 적금(31.6%), 보험(28.4%), 부동산(21.6%) 등을 답했다(경향신문, 2007; 한국일보, 2007).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한 삼성경제연구소(2007b)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가구의 69.5%가 노후를 위해 재정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하였으나, 그들 중 78.9%는 현재의 준비규모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또한 통계청(2010)의 2008~2009년 사회조사 결과에서는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한 베이비붐세대가 80%였으나, 주된 방법은 국민연금(39%)과 예금, 적금(24%)으로 그 규모가 충분치 못한 수준임을 보여주었다.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국가 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시장경제를 이끌어온 막강한 힘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보다 10년 앞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를 맞이한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소비시장과 자산시장의 급속한 성장을 견인한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시장 노동력 부족, 특히 숙련된 노동력의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기업경쟁력이 저하되었고, 조세수입 감소, 연금부담 증가 등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였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는 1955년생이 55세가 된 2010년부터 은퇴를 시작했고, 2020년 정도까지 본격적인 노동시장 이탈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일본 보다 더 심각한 사회, 경제 문제를 경험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미국과 일본의 베이비붐세대가 막강한 소비력과 금융자산을 보유한 것에 반해, 우리나라 베이비붐세대는 노후 경제력이 많이 부

족하기 때문이다(매일경제, 2008). 자녀양육과 교육에 전념하느라 본인을 위한 노후준비가 부족했고, 부동산의 비중이 높은 자산구조 때문에 은퇴 후 유동자금 창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처럼 베이비붐세대의 은퇴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제 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인 새로마지플랜 2015에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 대응체계 구축’을 포함시켰다. 이는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을 위한 3대 분야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베이비붐세대의 고용, 소득보장, 창업지원, 건강검진과 관리,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0).

2.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구조

1) 베이비붐세대와 자산시장

베이비붐세대가 향후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의 논리적 바탕에는 생애주기 가설(life-cycle income hypothesis)이 있다. 합리적인 개인과 가계는 일생에 걸쳐 비슷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반면,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중·장년기에 정점에 이르고 은퇴 이후 급격히 하락한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가계는 전 생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과 자산에 근거하여 소비를 결정한다(Bryant, 1990). 즉 소득이 적은 생애주기 초기에는 미래의 자산을 이전하여 소비를 충당하고, 중·장년기를 거쳐 부의 축적을 극대화하며 은퇴 이후에는 그 동안 축적했던 자산을 소비하며 살아간다는 것인데, 현재 우리나라의 베이비붐세대는 생애주기 상 소득과 부의 정점에서 은퇴로 이어지는 시기에 있다. 그러므로 대규모의 인구집단인 이들이 그동안 축적한 자산을 은퇴 후 어떻게 소비하는가가 자산시장 전체에 큰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

자산시장붕괴가설(asset meltdown hypothesis)

은 생애주기가설을 전제로 한다. 이는 1990년대 미국 월가의 증시 분석가들이 처음 제기했는데, 대다수의 개인이 생애주기에 따른 부의 이전 메카니즘을 따르므로, 연령별 인구구조의 자산수요 변화가 시장 전체의 저축률, 자산 가격, 투자구조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자산시장 붕괴가설은 198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주가의 급등세가 베이비붐세대(1946~1964년 생)의 자산축적기 진입과 관련이 깊고, 같은 맥락에서 베이비붐세대가 은퇴기로 접어드는 2006~2010년 이후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이철용, 2006).

생애주기가설과 자산시장붕괴가설은 베이비붐세대가 노후생활에 필요한 소비력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자산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시나리오의 근거가 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는 달리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육박할 정도로 높다. 그러므로 베이비붐세대가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한꺼번에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폭락에 가까운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홍춘욱, 2007). 특히 주택을 새로 구입하는 35~54세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주택경기 침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보유 특성

우리나라 베이비붐가계의 자산보유 집중도는 금융자산 보다 부동산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2011)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모든 연령대에서 실물자산의 비중이 80%이상으로 월등히 높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그 비중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통계청(2006)의 가계자산조사 결과에서도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연령대가 낮을수록, 부동산 자산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총자산

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이용한 남상호와 권순현(2008)의 연구는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계의 순자산이 거의 부동산 자산에 집중되어 있고,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점유비중이 낮으며, 순자산의 60% 이상을 거주주택이 차지한다고 보고하였다.

가구주 연령대별 가계의 자산구성 패턴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 가계는 가구주 은퇴 이전인 40대부터 저축총액을 꾸준히 줄이는 대신 부동산 비중을 점차 늘리는 행태가 뚜렷하게 나타난다(삼성경제연구소, 2007a). 미국의 경우 가구주 연령대별 부(총자산-총부채)와 가구별 저축률 곡선이 55-64세에 정점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하는 역 U자형인 반면,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별 저축률 곡선은 40대 중반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이후 상승하는 N자형이다(이철용, 2006). 연령에 따른 자산수요 변화를 분석한 박창균(2003)은 30대보다 40대 이후 연령층의 금융자산 비중이 낮은 것은 주로 30대에 거주주택을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지속된 금리하락과 개인재무설계에 대한 관심 증가, 금융투자상품의 다양화로 인해 많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였고,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다른 연령대 보다 금융투자자산을 보유하는 경향이 높았다. 통계청(2011)의 가계금융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와 60대 이상은 안전금융자산의 보유비중이 높은 반면, 30대, 40대, 50대는 금융투자자산의 보유비중이 더 높았다. 특히 펀드평가액과 저축성보험의 보유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40대였고, 주식, 채권, 선물 등 증권의 보유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50대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증권연구소(2007)가 실시한 가구주 연령별 주식태도 조사에서는 전체 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은 35~49세로 나타났다.

서지원(2012)의 연구에 따르면, 베이비붐세대는 그들 이전세대에 비해 소득과 저축이 두 배

이상이었으나, 총자산은 이전세대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부채 보유액은 유의하게 많았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베이비붐세대 보다 그들 이전세대가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철용(2006)은 베이비붐세대가 보유한 자산이 시장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평균적인 가구의 자산축적 및 처분패턴을 분석했고, 이를 한국, 미국, 일본 간에 비교하였다. 주식 직접투자만 보면, 베이비붐세대의 주식 보유액이 전체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 16.1%로, 일본의 5%와 미국의 15%보다 높았다. 간접투자까지 포함할 경우에는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보유액이 20.1%를 차지하여, 일본(7%)보다는 높으나 미국(30%)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가계자산과 부채의 구성비, 규모 등을 살펴보는 것은 가계재무상태의 전체적인 특성을 파악하게 해 주나, 가계의 안정성, 성장성 등 복합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인지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반면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은 현금흐름표, 자산부채상태표 등 재무제표 상에 표시된 두 가지 이상 변수의 관계를 수치로 표현한 지표(index)이기 때문에, 가계의 재무능력 평가에 객관적인 척도를 제공한다.

국내외의 선행연구(DeVaney, 1993; Garman & Fogue, 1994; Griffith, 1985; Lytton, Garman & Porter, 1991; 안승철·김년희, 2001; 양세정·정지영, 2010; 양정선, 1997;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 2003)에서 제시한 자산·부채 관련 재무비율을 살펴보면, 비상자금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유동자산/월평균생활비, 부채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유동자산, 총자산/총부채, 가계의 투자성향을 평가하는 투자자산/총자산, 실물자산/총자산, 가계의 유동성을 평가하는 유동자산/총자산 등이 있다.

베이비붐세대가 속하는 중·장년기 가계의 경우, 유동자산/월평균생활비의 비중이 크고, 월평균부채상환액/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금융자산이

30대 보다 높으나 노년기 가계보다는 낮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총자산/총부채와 투자자산/총자산, 투자자산/순자산 등의 투자성향이 다른 연령대 가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채은석·성영애, 2000; 최윤지·최현자, 1998; 최현자·성영애·주소현·차경옥, 2012).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2006년과 2011년 각 년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를 살펴보고, 이를 베이비붐세대가 아닌 가계와 비교하여 그 특성을 분석하며, 2006년과 2011년 사이에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향후 재무상태와 나아가 자산시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2006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는 어떠한가?

- 1-1. 자산·부채 항목별 보유율과 보유액 수준은 어떠한가?
- 1-2. 2006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항목별 보유액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는 어떠한가?

- 2-1. 자산·부채 항목별 보유율과 보유액 수준은 어떠한가?

- 2-2.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항목별 보유액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2006년과 2011년을 비교할 때,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는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 3-1. 자산·부채 항목별 보유액과 구성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3-2. 자산·부채상태 관련 재무비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2.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주가 1955~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를 분석하였다. 2006년 처음으로 실시된 가계자산조사는 개별 가계의 유형별 자산과 부채보유 현황에 초점을 둔 전국 규모 2차 자료이다. 2006년 가계자산조사는 전국 1인 이상 표본가구를 대상으로 저축액, 투자액, 부동산평가액, 기타자산평가액, 금융기관 대출액, 기타대출액 등을 구체적 항목으로 분류, 조사(2006년 5월 31일 기준)한다(통계청, 2007).

가계금융조사는 가계의 자산부채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패널조사로서, 2010년부터 통계청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가구의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부채, 기타부채 등 구성과 분포를 조사한다. 이는 기존에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에서 가계의 자산부채상태 및 재무상황을 조사하던 다양한 조사를 통합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가계자산조사 역시 가계금융조사로 통합되었다(통계청, 2011).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1년 가계금융조사는 전국 1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2011년

〈표 1〉 2006년 가계자산조사 자산·부채 변수 재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종류/설명
총자산	금융 자산	저축액	적립식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식 저축, 적립식 펀드
				저축성 보험(만기에 불입원금 초과 지급되는 보험)
		목돈투자	예치식 저축, 목돈예치펀드	
	주식, 채권 (기준일 현재 시가평가액)			
	기타저축	빌려준 돈, 불입한 갯돈		
	전·월세 보증금	현재 거주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실물 자산	부동산	주택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외의 주택	
		주택 외 부동산	토지, 건물, 계약·중도금 납입액	
	기타실물자산	자동차, 회원권(골프, 콘도 등), 귀금속, 예술품 등		
총부채	금융 기관 부채	금융기관자금대출	은행, 카드사, 보험사, 캐피탈회사(카드론 포함) 등	
		현금서비스	현금서비스의 현재 미상환액	
		마이너스통장	마이너스통장의 현재 미상환액	
		외상 및 할부	외상, 할부 미결제액	
	기타부채	개인, 대부업체, 직장대출, 갯돈 미불입금		
	임대보증금	주택, 주택 이외의 건물, 토지 등의 임대보증금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				

〈표 2〉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산·부채 변수 재구성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항목	종류/설명
총자산	금융 자산	저축액	적립식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현금
				적립식 저축, 적립식 펀드
				저축성 보험(만기에 불입원금 초과 지급되는 보험)
		목돈투자	예치식 저축, 목돈예치펀드	
	주식, 채권, 선물, 옵션 (기준일 현재 시가평가액)			
	기타저축	빌려준 돈, 불입한 갯돈		
	전·월세보증금	현재 거주주택의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		
실물 자산	부동산	거주주택		
		거주주택 외 부동산	거주주택 외의 주택, 토지, 건물, 계약·중도금 납입액	
	기타실물자산	자동차, 회원권(골프, 콘도 등), 귀금속, 예술품 등		
총부채	금융 부채	담보대출	거주주택, 기타부동산, 예적금 및 보험담보 등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포함	
		신용카드관련대출	현금서비스, 카드론, 대환대출 등	
		외상 및 할부	외상, 할부 미결제액 (일시불 신용카드 미결제액 제외)	
	기타부채	갯돈 미불입금		
	임대보증금	주택, 주택 이외의 건물, 토지 등의 임대보증금		
순자산 = 총자산 - 총부채				

3월 31일 현재 가계의 자산 및 부채상태를 조사한 결과이다.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1년 가계금융조사의 전체 표본은 각각 8,275가구와 10,516가구이고, 연구대상인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2006년 2,266가구, 2011년 2,307가구이다.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1년 가계금융조사의 표본설계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조사구를 추출한 후, 조사구 내 가구를 추출하는 확률비례계통추출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지역 및 주택특성에 따른 층별 구분을 통해 1차 설계가중치 산출하고, 층별 무응답을 조정하여 2차 가중

치 적용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농가·비농가 비율, 1인 가구·2인 이상 가구 비율 등을 이용하여 사후층화가중치를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자산·부채상태 분석은 위의 1~3차 가중치를 적용하여 이루어졌다. 2006년과 2011년의 자료가 동일집단을 대상으로 한 패널조사 자료는 아니지만, 확률비례계통추출 방법을 통해 전국의 표본가구를 추출한 후 가중치를 적용했으므로, 표본의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두 시점의 자료를 비교함에 있어, 표집오차로 인한 바이어스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3〉 자산·부채 관련 재무비율

재무지표		개념	재무비율	선행연구 준거기준 ¹⁾
안정성 지표	비상자금 지표	실업 등의 사건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유동성이 큰 금융자산으로 현 생활수준을 몇 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	$\frac{\text{유동자산}}{\text{월평균가계소득}}$	1배~6배
	부채부담 지표	단기부채부담지표: 유동자산으로 부채상환 가능한지 부채상환능력평가	$\frac{\text{총부채}}{\text{유동자산}}$	10배 미만
		중기부채부담지표: 금융자산으로 부채상환 가능한지 부채상환능력평가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4배 미만
	장기부채부담지표: 총자산으로 부채를 청산할 수 있는지 부채청산능력 평가	$\frac{\text{총부채}}{\text{총자산}}$	80% 미만	
성장성 지표	투자성향 지표	위험부담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은 투자자산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정도 측정	$\frac{\text{투자자산}}{\text{총자산}}$	5%~25%
			$\frac{\text{투자자산}}{\text{순자산}}$	20% 이상
		실물자산에의 투자성향 평가	$\frac{\text{실물자산}}{\text{총자산}}$	60% 미만
	유동성 지표	총자산에서 유동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유동성 평가	$\frac{\text{유동자산}}{\text{총자산}}$	10% 이상

¹⁾ DeVaney(1993), Garman & Fogue(1994), Lytton, Garman & Porter(1991), 안승철·김년희(2010), 양세정·정지영(2010),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준거기준을 정리함

²⁾ 유동자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³⁾ 투자자산 = 적립식 저축·펀드 + 저축성보험 + 예치식 저축·펀드 + 주식, 채권 등

3. 측정도구 및 분석방법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서 자산·부채 조사항목은 다소간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시점의 자산·부채상태를 비교하기 위해, 각 년도의 조사항목을 조합하거나 세분화하여 가능한 한 유사한 형태의 변수로 재분류하였다. <표 1>과 <표 2>는 본 연구를 위해 재구성한 항목체계이다. 자료의 제한으로 각 세부항목의 조사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칸을 음영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세대 가계 자산·부채상태의 안정성과 성장가능성 등 재무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재무비율(financial ratio)을 측정하였다. 국내외의 선행연구(DeVaney, 1993; Garman & Fogue, 1994; Lytton, Garman & Porter, 1991; 안승철·김년희, 2001; 양세정·정지영, 2010;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 2003)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금융자산/월평균가계소득, 총부채/금융자산, 총부채/총자산, 투자자산/총자산, 실물자산/총자산, 유동자산/총자산을 선정하였다. 각 재무비율에 대한 설명과 준거기준은 <표 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자산·부채 보유율과 보유액, 재무비율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로 평균, 백분율, 구성비 등의 기술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사용하였고, 베이비붐세대와 비(非)베이비붐세대의 자산·부채상태 비교검증에는 t-test를 사용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특성

2006년 가계자산조사와 2011년 가계금융조사를 통해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일반적 특성을 살

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베이비붐세대는 2006년 기준 43세~51세로 중년기에 해당하며, 2011년에는 48세~56세가 되어 은퇴기에 막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가구주 성별은 남성이 약 83%, 여성이 약 17%이었고, 가구주 교육수준은 중졸 이하가 24~26%, 고졸이 42~44%를 차지했으며, 대졸이상은 약 31%였다.

2006년과 2011년의 가구주 직업을 비교하면, 전문·관리직은 29%에서 16%로, 기능직은 38%에서 31%로 그 비율이 감소한 반면, 사무·서비스·판매직은 26%에서 31%로, 단순노무직은 7%에서 13%로 비율이 증가하였다. 전문·관리직과 기능직의 근속연수가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50세를 넘어서면서 직업 이동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1년에 가구주가 은퇴한 베이비붐세대는 약 5%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는 평균 3.5명 정도였고, 2011년에는 가구원 수가 1명인 가계와 4명 이상인 가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가 보유율은 2006년 약 69%에서 2011년 약 64%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베이비붐세대가 43세~51세에 해당하는 2006년의 연간 가계 총소득은 약 4,115만원으로, 전체 표본가구(n=8,275)의 평균 약 3,613만원 보다 500만 원 가량 많았다. 2011년 연간 가계총소득은 약 5,187만원으로, 전체 표본가구(n=10,516)의 평균 약 4,127만원 보다 1,000만 원 이상 많았는데, 이는 48세~56세인 베이비붐 세대가 근로생애주기 상 소득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으나 아직 본격적인 은퇴는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4>에 제시된 연간가계총소득은 명목소득이므로,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06년 가계총소득을 2011년 화폐가치로 환산(CPI 2011년=100.0)하면 약 4,859만원이 된다. 즉 2011년 화폐가치로 연간 약 328만원이 연령 증가에 따른 실질소득 증가분인 것이다.

<표 4> 조사대상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일반적 특성

구 분		2006년 가계자산조사 (n=2,266)		2011년 가계금융조사 (n=2,307)	
		빈도 (%) 또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 (%) 또는 평균 (표준편차)	
가구주 성별	남성	1,872	(82.6)	1,929	(83.6)
	여성	394	(17.4)	378	(16.4)
가구주 연령 (세)		46.7 (2.6)		51.9 (2.6)	
가구주 교육수준	중졸 이하	547	(24.1)	612	(26.5)
	고졸	1,010	(44.6)	972	(42.1)
	대졸 이상	709	(31.3)	723	(31.4)
가구주 직업	전문·관리직	478	(29.0)	358	(15.5)
	사무·서비스·판매직	581	(25.7)	705	(30.6)
	기능직	866	(38.2)	718	(31.1)
	단순노무직	159	(7.0)	292	(12.7)
	무직·기타	182	(8.0)	234	(10.1)
	은퇴	-	-	111	(4.8)
가구원수	1명	93	(4.1)	170	(7.4)
	2명	388	(17.1)	293	(12.7)
	3명	603	(26.6)	495	(21.4)
	4명이상	1,182	(52.2)	1,349	(58.5)
	평균 (명)	3.5 (1.1)		3.5 (1.2)	
자가보유 여부	보유	1,568	(69.2)	1,468	(63.6)
	미보유	698	(30.8)	839	(36.4)
연간 가계총소득 (만원)		4,114.6 ¹⁾ (2,791.1)		5,186.6 (5,640.6)	

¹⁾ 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2011년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4,858.8 만원임.

2. 2006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상태

1) 2006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항목별 보유율과 보유액

2006년 기준 43세~51세에 해당하는 베이비붐세대 가계를 대상으로 자산, 부채의 항목별 보유율과 보유액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조사대상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총자산 평균액은 약 2억 9,607만 원, 총부채 평균액은 약 4,160만 원

이었으며,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92.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순자산의 평균은 2억 5,447만 원이었다. 금융자산 보유액은 평균 6,585만원, 실물자산 보유액은 평균 2억 3,022만원으로 금융자산 규모가 총자산의 22% 수준에 불과했다.

자산 항목별 보유율과 보유액을 살펴보면, 적립식 저축, 목돈투자 및 기타저축액을 모두 합한 저축총액은 평균 5,703만 원이었다. 적립식 저축 중에서는 97%의 가계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고, 82% 가량이 저축성 보험을,

〈표 5〉 2006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항목별 보유율과 보유액

(n=3,815,157¹⁾, 단위: 만원, %)

항 목	전체 평균	보유율	보유가계 평균
총자산	29,606.5	99.8	29,672.0
금융자산	6,584.6	99.8	6,599.1
저축액	5,702.9	99.2	5,746.0
적립식	2,939.6	99.2	2,964.5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702.2	96.6	726.6
적립식 저축·펀드	686.5	48.7	1,410.3
저축성보험	1,551.0	81.6	1,900.8
목돈투자	2,062.0	42.4	4,867.2
예치식 저축·펀드	1,645.9	36.6	4,493.6
주식·채권	416.1	13.3	3,121.8
기타저축	701.2	30.2	2,323.1
전·월세 보증금	881.7	24.3	3,632.8
실물자산	23,021.9	91.3	25,221.2
부동산 평가액	22,061.7	80.4	27,437.8
주택	12,589.5	76.2	16,528.3
주택 외 부동산	9,472.2	46.3	20,461.4
기타실물자산 평가액	960.2	87.1	1,102.8
총부채	4,159.5	92.5	4,499.0
금융기관부채	2,944.8	90.5	3,255.1
금융기관 자금대출	2,588.2	54.4	4,760.3
현금서비스	30.1	14.7	204.7
마이네스통장	225.5	31.6	713.7
외상 및 할부	101.1	76.9	131.5
기타부채	265.5	23.6	1,124.6
임대보증금	949.2	17.4	5,445.1
순자산	25,447.0		

¹⁾ 설계가중치, 무응답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적용으로 추정된 총 가구 수

약 49%는 적금, 부금, 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적립식펀드 등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을 보유하고 있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목돈마련을 위한 여타의 적립식 저축 보다 보유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보유가계의 평균 보유액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 유니버설보험 등 저축성 보험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노후생활을 위한 수단

으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는 경향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정기예금이나 목돈예치펀드, 신탁, CD 등과 같이 목돈을 예치하는 저축을 보유한 가계는 37%정도였고 보유가계의 평균 저축액은 약 4,494만 원이었다. 주식과 채권을 보유한 가계는 13.3%로 모든 자산 항목 중에서 그 보유율이 가

〈표 6〉 2006년 베이비붐세대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보유액 비교

(단위: 만원)

항 목	베이비붐세대 (n=3,815,157) ¹⁾	비(非)베이비붐세대 (n=10,536,578) ¹⁾	t-값
총자산	29,606.5	27,855.4	1.25
금융자산	6,584.6	5,749.7	2.29*
저축액	5,702.9	4,850.3	2.71**
적립식	2,939.6	2,207.6	5.63***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702.2	671.7	.53
적립식 저축·펀드	686.5	571.0	1.15
저축성보험	1,551.0	964.9	9.17***
목돈투자	2,062.0	2,156.4	-.43
예치식 저축·펀드	1,645.9	1,896.7	-1.69
주식·채권	416.1	259.8	2.35*
기타저축	701.2	486.2	.13**
전·월세 보증금	881.7	899.4	-.27
실물자산	23,021.9	22,105.8	.93
부동산 평가액	22,061.7	21,316.5	.61
주택	12,589.5	10,825.6	3.24**
주택 외 부동산	9,472.2	10,491.0	-1.28
기타실물자산 평가액	960.2	789.3	3.41***
총부채	4,159.5	3,442.3	4.07***
금융기관부채	2,944.8	2,390.1	4.71***
금융기관 자금대출	2,588.2	2,097.3	4.39***
현금서비스	30.1	30.4	-.06
마이너스통장	225.5	178.0	2.74**
외상 및 할부	101.1	85.2	3.01**
기타부채	265.5	197.0	2.25*
임대보증금	949.2	854.4	.90
순자산	25,447.0	24,413.1	.79

¹⁾ 설계가중치, 무응답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적용하여 추정된 총 가구 수

* p < .05, ** p < .01, *** p < .001

장 낮은 반면, 보유가계의 보유액 평균은 약 3,122만 원으로 다른 저축상품 보다 높은 편이었다. 즉 주식과 채권의 직접투자는 적은 수의 가계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보유액 규모가 가장 큰 자산은 부동산으로 조사대상 전체 평균은 2억 2,062만 원, 보유가계(보유율 80.4%)의 평균 보유액은 2억 7,438만 원 정도였다. 주택을 보유한 가계(76%)의 보유액 평균은 1억 6,528원인데 반해, 주택 외 부동산을 보

유한 가계(46%)의 보유액 평균은 2억 461만원으로 나타나, 주택 외 부동산의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항목별 부채 보유율 및 보유액을 살펴본 결과, 어떠한 형태든 금융기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계가 91%에 달했고, 이들 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약 3,255만원이었다. 이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자금을 대출받은 가계가 54%정도였고 그 대출액은 평균 4,760만원이었으며, 조사대상 가계의 약 15%는 현금서비스 미상환액을, 약 32%는 마이너스통장 미상환액을, 약 77%는 외상 및 할부 미결제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이나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 직장대출, 갯돈미불입금 등 기타 원천의 부채를 보유한 가계도 24%에 달했으며, 이들 가계의 평균 부채액이 1,125만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 2006년 베이비붐세대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보유액 비교

2006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 부채 보유액을 비교 검증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총자산과 순자산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총부채는 베이비붐세대 가계(4,160만원)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3,442만원)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자산 항목별로 보면,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적립식저축 총액 규모가 유의하게 컸는데, 이는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저축성보험 평균액(1,551만원)이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965만원) 보다 유의하게 높았기 때문이다. 중년기에 해당하는 베이비붐세대가 노후생활에 대비하기 위한 장기저축 수단으로 저축성보험에 적립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목돈예치저축액은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주식과 채권 보유액은 베이비붐세대 가계(416만원)가 비(非)베

이비붐세대 가계(260만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베이비붐세대는 재무생애주기의 단계로 볼 때 자산축적기에 해당하므로, 상대적으로 위험부담이 높은 증권투자에 배분하는 자금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갯돈 불입금, 빌려준 돈 등 기타저축에 해당하는 자금의 규모도 베이비붐세대가 그 외의 가계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중에서는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주택 평가액, 그리고 자동차, 골프나 콘도 회원권, 귀금속 등 기타자산 평가액이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부채원천별로 살펴보면, 금융기관부채와 기타 부채(개인이나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직장대출, 갯돈 미불입금 등) 모두 베이비붐세대 가계가 그 외의 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은 미상환액을 보유하고 있었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은 베이비붐세대 가계가 2,588만원,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가 2,097만원으로 세부 항목 중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마이너스통장 미상환액, 외상 및 할부 미결제액도 베이비붐세대 가계가 그 외의 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상태

1)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항목별 보유율과 보유액

2011년 가구주의 연령이 48세~56세가 된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를 항목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총자산은 평균 약 3억 9,185만 원, 총부채는 평균 약 7,276만 원이었고, 순자산의 평균은 3억 1,910만 원이었다.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금융자산 보유액은 평균 9,228만원, 실물자산 보유액은 평균 2억

〈표 7〉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항목별 보유율과 보유액

(n=3,811,730¹⁾, 단위: 만원, %)

항 목	전체 평균	보유율	보유가계 평균
총자산	39,185.3	99.9	39,235.6
금융자산	9,228.0	99.9	9,240.0
저축액	7,378.2	99.4	7,420.0
적립식	3,868.7	99.3	3,895.7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982.5	97.7	1,006.1
적립식 저축·펀드	695.8	45.7	1,522.9
저축성보험	2,190.4	77.9	2,791.0
목돈투자	2,710.8	33.3	8,142.9
예치식 저축·펀드	1,685.5	26.7	6,312.3
주식·채권·선물·옵션	1,025.3	12.5	8,184.6
기타저축	798.8	20.5	3,895.8
전·월세 보증금	1,849.8	31.5	5,878.1
실물자산	29,957.3	88.6	33,148.0
부동산 평가액	28,661.9	74.2	39,242.0
거주주택	14,109.7	63.6	23,034.3
거주주택 외 부동산	14,552.2	40.7	35,714.7
기타실물자산 평가액	1,295.4	82.2	1,575.4
총부채	7,275.6	72.2	10,074.9
금융부채	5,079.8	66.0	7,694.7
담보대출	4,015.1	43.3	9,262.7
신용대출	919.8	27.3	3,368.1
신용카드관련대출	79.3	8.5	933.2
외상 및 할부	65.7	22.9	286.4
기타부채	8.8	1.3	696.3
임대보증금	2,187.1	21.6	10,131.8
순자산	31,909.7	95.4	35,064.8

¹⁾ 설계가중치, 무응답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적용하여 추정된 총 가구 수

9,957만원으로 금융자산 규모가 총자산의 23.5% 정도였다. 금융자산의 구성을 보면, 적립식 저축, 목돈투자 및 기타저축액을 모두 합한 저축총액이 평균 7,378만 원이었고, 전·월세보증금이 1,850만원이었다.

적립식 저축은 조사대상 가계의 99%가 보유한 반면, 목돈투자를 위한 저축은 약 33%의 가계만

보유하고 있었다. 적립식 저축을 항목별로 살펴 보면, 보유율이 가장 높은 저축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으로 98%의 가계가 보유하고, 그들의 평균 보유액은 약 1,006만원이었다. 가장 많은 금액을 보유한 항목은 저축성 보험이었는데, 약 80%의 가계가 보유하고 보유가계의 평균 보유액은 약 2,791만원이었다. 또한 46%의 가계는 적립

식 저축이나 적립식 펀드를 가지고 있었고, 이들 가계의 평균 보유액은 약 1,523만원이었다. 저축성 보험과 적립식 저축·펀드의 보유율은 2006년 가계자산조사 자료 보다 1.5~3% 가량 낮게 나타났다.

정기예금, 신탁 등 예치식 저축이나 거치식 펀드와 같이 목돈투자를 위한 저축을 보유한 가계는 약 27%로 2006년 보유율(37%) 보다 10%가량 낮았는데, 은퇴시기가 가까워짐에 따라 장기간 예치하는 저축 보다는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저축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치식 저축·펀드를 보유한 가계의 평균 저축액은 약 6,312만 원이었다. 주식, 채권, 선물 등 증권투자상품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은 약 13%이었고, 이들 가계의 보유액 평균은 약 8,185만 원이었다. 이는 금융자산 중 보유가계 평균 보유액이 가장 높은 항목이었다.

부동산을 보유한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비율은 약 74%이고, 이 중 거주주택 보유율이 63%,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 보유율이 41%로 나타났다. 2006년에 부동산 보유 가계 비율이 80%, 주택(거주주택 및 거주 이외의 주택 포함) 보유율이 76%, 주택 외 부동산 보유율이 46%이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자료상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보유율은 확실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항목별 부채 보유율과 보유액을 살펴본 결과,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관련 대출, 외상 및 할부 등 금융대출을 받은 후 아직 상환하지 못한 금융부채를 가지고 있는 가계의 비율이 66%였고, 이들 가계의 평균 부채액은 약 7,696만원이었다. 2006년 자료에서 금융기관부채 보유 가계 비율이 91%였던 것과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외상 및 할부 미결제액 조사방법 차이에 기인한다. 즉 2011년 가계금융조사에서는 일시불 신용카드 미결제액은 제외하고, 외상 및 할부 미결제액만 기입하도록 한

결과 보유 가계의 비율이 약 23%였고, 2006년 가계자산조사에서는 단서 조항 없이 일정 시점에서 외상 및 할부 미결제액을 기입하도록 했기 때문에 보유 가계의 비율이 77%로 높게 나타났다.

금융부채 중에서는 담보대출 미상환액을 보유한 가계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43%), 이들 가계가 보유한 부채액은 평균 9,263만원에 달했다. 또한 마이너스통장을 포함하여 신용대출을 받은 가계의 비율은 약 27%였고, 해당 가계가 상환해야 하는 부채액은 평균 3,368만원 정도였다.

2) 2011년 베이비붐세대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보유액 비교

<표 8>은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 부채 보유액을 비교 검증한 결과이다. 2006년 결과(<표 6>)와 비교해 볼 때, 베이비붐세대 가계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 간의 총자산, 순자산 규모 차이가 눈에 띄게 크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자산, 부채 항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연령이 48세~56세인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총자산이 3억 9,185만원, 총부채가 7,276만원, 순자산이 3억 1,910만원인데 반해,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총자산은 2억 9,418만원, 총부채는 5,094만원, 순자산은 2억 4,786만원으로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모두 유의하게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금융자산총액과 실물자산총액도 베이비붐세대 가계가 유의하게 높았다.

금융자산 유형별로 보면, 적립식 저축, 목돈투자, 기타저축 각각의 범주에서 베이비붐세대 가계가 그렇지 않은 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은 저축액을 보유하고 있었고, 각 저축의 모든 세부항목에서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저축보유액이 유의하게 높았다. 적립식 저축에서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적립식 저축과 펀드, 저축성 보험 모두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특히 저축성보험

〈표 8〉 2011년 베이비붐세대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평균 비교

(단위: 만원)

항 목	베이비붐세대 (n=3,811,730) ¹⁾	비(非)베이비붐세대 (n=13,686,259) ¹⁾	t-값
총자산	39,185.3	29,418.3	7.92***
금융자산	9,228.0	6,910.8	5.21***
저축액	7,378.2	4,855.1	6.49***
적립식	3,868.7	2,608.0	8.19***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982.5	789.0	2.11*
적립식 저축·펀드	695.8	508.8	3.99***
저축성보험	2,190.4	1,310.2	11.02***
목돈투자	2,710.8	1,813.1	3.10**
예치식 저축·펀드	1,685.5	1,321.8	2.64**
주식·채권·선물·옵션	1,025.3	491.3	2.44*
기타저축	798.8	434.1	4.79***
전·월세 보증금	1,849.8	2,055.7	-1.66
실물자산	29,957.3	22,968.2	6.52***
부동산 평가액	28,661.9	22,023.7	6.38***
거주주택	14,109.7	12,301.0	5.71***
거주주택 외 부동산	14,552.2	9,722.8	4.83***
기타실물자산 평가액	1,295.4	944.4	4.71***
총부채	7,275.6	5,093.5	5.81***
금융부채	5,079.8	3,438.9	5.40***
담보대출	4,015.1	2,756.7	4.67***
신용대출	919.8	574.7	3.21**
신용카드관련대출	79.3	37.9	3.11**
외상 및 할부	65.7	69.6	-.34
기타부채	8.8	4.9	1.30
임대보증금	2,187.1	1,649.7	3.07**
순자산	31,909.7	24,785.5	6.46***

1) 설계가중치, 무응답가중치, 사후층화가중치 적용하여 추정된 총 가구 수

* p < .05, ** p < .01, *** p < .001

이 가장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보험료의 일부를 투자운용해서 실적에 따라 보험금을 돌려주는 변액보험이 확산되고 보험금 수령시기와 방법 등을 다양화한 상품이 증가했으며,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은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있기 때

문에, 노후준비를 위해 저축성 보험에 많은 돈을 적립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2006년과 달리 2011년에는 주식과 채권 등 보유액 뿐 아니라 목돈예치식 저축 및 펀드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48세~56세인 베이비붐세

〈표 9〉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보유액, 구성비 변화: 2006년과 2011년 ¹⁾

(단위: 만원, %)

항 목 ²⁾	2006년 (n=3,815,157)		2011년 (n=3,811,730)		증감액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총자산	34,961.7	100.0	39,185.3	100.0	4,223.6
금융자산	7,775.6	22.2	9,228.0	23.5	1,452.4
저축액	6,734.4	19.3	7,378.2	18.8	643.8
적립식	3,471.3	9.9	3,868.7	9.9	397.4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829.2	2.4	982.5	2.5	153.3
적립식 저축·펀드	810.7	2.3	695.8	1.8	-114.9
저축성보험	1,831.5	5.2	2,190.4	5.6	358.9
목돈투자	2,435.0	7.0	2,710.8	6.9	275.8
예치식 저축·펀드	1,943.6	5.6	1,685.5	4.3	-258.1
주식, 채권	491.4	1.4	1,025.3	2.6	533.9
주식, 채권, 선물, 옵션					
기타저축	828.0	2.4	798.8	2.0	-29.2
전·월세 보증금	1,041.2	3.0	1,849.8	4.7	808.6
실물자산	27,186.1	77.8	29,957.3	76.5	2,771.2
부동산 평가액	26,052.2	74.5	28,661.9	73.1	2,609.7
주택 ³⁾	14,866.7	42.5	14,109.7	36.0	-
거주주택					
주택 외 부동산	11,185.5	32.0	14,552.2	37.1	-
거주주택 외 부동산					
기타실물자산 평가액	1,133.9	3.2	1,295.4	3.3	161.5
총부채	4,911.9	100.0	7,275.6	100.0	2,363.7
금융기관부채	3,477.5	70.8	5,079.8	69.8	1,602.3
금융기관자금대출	3,056.4	62.2	4,015.1	55.2	
담보대출					
현금서비스	35.5	0.7	919.8	12.6	1,656.0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266.3	1.3	79.3	1.1	
신용카드관련대출					
외상 및 할부	119.4	2.4	65.7	0.9	-
외상 및 할부 ⁴⁾					
기타부채 ⁵⁾	313.5	6.4	8.8	0.1	-
임대보증금	1,120.9	22.8	2,187.1	30.1	1,066.2
순자산	30,049.8		31,909.7		1,859.9

¹⁾ 소비자물가지수를 적용, 2011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제시함. CPI 2011년=100.0

²⁾ 2006년과 2011년 조사 항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칸을 나누어 표기하고, 각주로 설명함.

³⁾ 2006년: 거주주택 및 거주주택 외의 주택

⁴⁾ 2011년: 일시불 신용카드 미결제액 제외

⁵⁾ 2006년: 개인, 대부업체, 직장대출, 갯돈 미불입금, 2011년: 갯돈 미불입금

대는 다른 연령대 보다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
에,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 유동성을 포기하는

목돈예치 또는 안전성을 포기하는 증권투자 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실물자산에서도 베이비

붐세대 가계는 거주주택 뿐 아니라,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 기타실물자산 평가액 모두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 보다 유의하게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었다.

가계부채를 살펴보면,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담보대출, 신용대출, 신용카드관련대출 미상환액이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 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보대출이 4,015만원으로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2,757만원)와 가장 큰 차이를 나타냈는데, 주택 및 기타 부동산, 예적금 및 보험 등 담보에 따라 대출규모와 대출조건 등이 달라지기 때문에 더 많은 자산을 보유한 베이비붐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금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2006년 조사결과와 달리, 임대보증금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 역시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가 보다 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 변화: 2006년과 2011년 비교

1)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보유액과 구성비 변화: 2006년과 2011년 비교

2006년 가구주 연령이 43세~51세 중년기에 해당했던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상태가 5년 후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2006년과 2011년 항목별 자산·부채액의 실질적 증감을 파악하기 위해 5년 동안 상승한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실질 금액을 계산하고, 증감분을 제시하였다. 즉 2011년의 소비자물가지수(CPI)를 100.0으로 두고, 2006년의 모든 항목별 자산·부채 보유액을 2011년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비교하였다.

2006년과 2011년 조사 내용에 차이가 있는 항목은 일대일 대응 비교가 불가능하므로, 증감액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2006년과 2011년의 자

산·부채 구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산과 부채의 항목별 구성비를 비교하였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총자산의 실질 증가분은 약 4,224만원, 총부채의 실질 증가분은 약 2,364만원이었다. 즉 조사대상 베이비붐세대의 연령이 5세 증가하는 동안 실질적인 순자산이 1,860만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2006년과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 가치와 구성비를 비교해 보면, 금융자산은 약 1,452만원 증가했으며, 총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2.2%에서 23.5%로 증가했다. 실질 저축액은 약 644만원 증가했으나, 총저축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5% 감소했다. 저축성보험, 주식, 채권 등의 증권투자는 보유액과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적립식 저축과 펀드, 예치식 저축과 펀드는 보유액과 비중이 모두 감소했다. 적립식과 예치식 저축, 펀드에는 다양한 형태의 상품이 포함되는데,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저축상품의 보유액이 감소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었다. 실물자산의 실질가치는 약 2,771만원 증가했으나,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8%에서 76.5%로 감소했는데, 부동산의 비중이 그만큼 감소한 것이다.

부채의 경우, 2006년과 2011년 조사항목에 차이가 있어 일대일 대응 비교는 어렵지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미상환한 부채액이 약 1,656만원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금융기관 자금 대출액이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총부채에서 임대보증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2.8%에서 30.1%로 크게 증가했는데, 이는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을 보유한 가계가 증가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외상 및 할부, 기타부채액에서 큰 금액 차이가 나타난 것은 각 년도의 조사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표 10〉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 관련 재무비율 변화: 2006년과 2011년

재무지표		재무비율	2006년	2011년	선행연구 준거기준 ¹⁾
안정성 지표	비상자금 지표	$\frac{\text{유동자산}^{2)}}{\text{월평균가계소득}}$	2.0 배	2.3 배	1배~6배
	부채부담 지표	$\frac{\text{총부채}}{\text{유동자산}}$	5.9 배	7.4 배	10배 미만
		$\frac{\text{총부채}}{\text{금융자산}}$	0.6 배	0.8 배	
		$\frac{\text{총부채}}{\text{총자산}}$	14.0 %	18.6 %	80% 미만
성장성 지표	투자성향 지표	$\frac{\text{투자자산}^{3)}}{\text{총자산}}$	14.5 %	14.3 %	5%~25%
		$\frac{\text{투자자산}}{\text{순자산}}$	16.9 %	17.5 %	20% 이상
		$\frac{\text{실물자산}}{\text{총자산}}$	77.8 %	76.5 %	60% 미만
	유동성 지표	$\frac{\text{유동자산}}{\text{총자산}}$	2.4 %	2.5 %	10% 이상

¹⁾ 안승철·김년희(2010), 양세정·정지영(2010), 양정선(1997),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2003), Devaney(1993), Lytton, Garman & Porter(1991) 등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준거기준을 정리함

²⁾ 유동자산 =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

³⁾ 투자자산 = 적립식 저축·펀드 + 저축성보험 + 예치식 저축·펀드 + 주식, 채권 등

2)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주요 재무비율 변화: 2006년과 2011년 비교

<표 10>은 2006년과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를 대상으로 자산·부채 관련 주요 재무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베이비붐세대 가계 자산·부채 상태의 안정성과 성장가능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준거기준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실업 등의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될 경우, 유동자산으로 현재의 생활수준을 몇 개월 정도 유지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 비상자금 지표를 보면, 2006년 베이비붐세대가계는 2개월,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2.3개월 정도 유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에

서 제시한 준거기준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며, 2011년에 비상자금 보유규모가 다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자산을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으로만 측정했으나, 현금성 높은 단기금융상품이나 예치식 저축 등을 포함하여 유동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면 비상자금지표는 더욱 개선될 것이다.

유동자산 대비 총부채는 2006년 5.9배에서 2011년 7.4배로 증가했고, 금융자산 대비 총부채는 2006년 0.6배에서 2011년 0.8배로 증가했으며, 총자산 대비 총부채의 비율은 2006년 14%, 2011년 18.6%로 증가했다. 이처럼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은 2006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악화되었지만, 선행연구의 준거기준과 비교

하면 여전히 매우 건전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2006년과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성장성지표는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무 비율이 더 많았다.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위험부담을 감수한 채 선택한 투자자산이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파악한 결과, 2006년에는 총자산의 14.5%, 순자산의 16.9%를, 2011년에는 총자산의 14.3%, 순자산의 17.5%를 차지했다.

총자산에서 실물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77.8%에서 2011년 76.5%로 다소 완화되었다. 그러나 준거기준과 비교해 볼 때,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투자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실물자산의 비중은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재정적 여유가 많은 중·장년기에 보다 공격적인 투자대안을 선택하되,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연금형태의 투자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세대가 43세~51세(중년기)인 2006년의 자산·부채상태와 베이비붐세대가 48세~56세(장년기)가 된 2011년의 자산·부채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 시점의 특성을 베이비붐세대 아닌 가계와 비교하였다. 또한 2006년과 2011년의 자산·부채구조, 재무비율을 비교함으로써, 은퇴가 가까워짐에 따라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자산·부채상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6년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약 6천 6백만 원의 금융자산과 약 4천 2백만 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었고, 2011년의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약 9천 2백만 원의 금융자산과 약 7천 3백만 원

의 부채를 가지고 있다. 금융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약 22%에서 2011년 약 23.5%로 약간 증가했으나, 여전히 실물자산이 76%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베이비붐세대가 은퇴 후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가계 자산구조에서 큰 변화를 감내해야 함을 의미한다. 우선은 부채를 상환하고, 은퇴 후 현금소득의 창출을 위해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금융투자자산을 늘리며, 실물자산의 형태를 변화시켜 유동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2011년 현재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약 2억 9천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중 반 정도는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이다. 거주주택 외 부동산은 노후생활을 위해 처분 가능한 자산이다. 그러나 부동산은 유형, 용도, 위치 등에 따라 현금화 가능성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평균 보유액 그 자체 보다는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정 수준의 임대료를 정기적으로 받는 건물이라면 은퇴 후 현금소득 창출에 중요한 기능을 하지만, 나대지라면 현금화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퇴를 목전에 둔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거주주택 외의 부동산을 어떻게 안정적인 소득원으로 전환시킬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저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금융자산은 2006년과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 모두 저축성보험이었다. 약 80%의 베이비붐세대 가계가 저축성보험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적립식저축 중에서는 평균 보유액도 가장 높았다. 보험료 운영방법, 보험금 수령시기와 방법 등이 다양하고, 비과세 또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노후에 대비하는 장기저축수단으로 저축성보험을 이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의 평균 보유액은 1,551만원, 2011년 2,190만원으로 총자산의 5% 정도에 불과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야 개인연금 상품이 급격히 확산되었기 때

문에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 가계의 비율은 높으나, 상대적으로 가입기간이 짧아 충분한 준비자금을 축적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2006년과 비교해 볼 때,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와 비(非)베이비붐세대 가계 간의 총자산, 순자산 규모 차이가 눈에 띄게 컸으며,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자산, 부채 항목도 많았다. 베이비붐세대에게 있어, 2006년(43세~51세)은 소득과 함께 지출도 증가하며 자산축적이 진행되는 시기라면, 2011년(48세~56세)은 자산이 극대화되는 정점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그렇지 않은 가계 보다 총자산, 총부채, 순자산 규모 모두 유의하게 컸으며, 적립식 저축, 목돈투자, 기타저축 등 금융자산의 모든 세부항목과 실물자산총액도 유의하게 높았다. 2006년과 달리 2011년의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주식과 채권 등 증권투자, 목돈예치식 저축과 펀드 보유액에서도 비(非)베이비붐세대와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들은 다른 연령대 보다 자금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다 나은 수익을 위해 유동성을 포기하는 목돈예치 또는 안전성을 포기하는 증권투자 등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금액을 계산, 비교한 결과, 2006년과 2011년 사이의 총자산 실질 증가분은 약 4,224만원, 총부채 실질 증가분은 약 2,364만원이었다. 즉 베이비붐세대의 연령이 5세 증가하는 동안 실질 순자산이 1,860만 원 정도 증가한 것이다. 저축성보험, 주식, 채권 등의 증권투자는 보유액과 구성비가 증가한 반면, 적립식 저축과 예치식 저축은 보유액과 비중이 감소하였다. 순자산 증가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익을 위해 어느 정도의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선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재무비율을 통해 베이비붐세대 가계의 재무안정성을 평가한 결과, 비상자금지표, 부채부담지표(유동자산 대비 총부채, 금융자산 대비 총

부채, 총자산 대비 총부채)는 2006년과 2011년 모두 선행연구의 준거기준을 충족하였다. 그러나 재무성장성 측면에서는 준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재무비율이 더 많았다. 2006년에 비해 2011년에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베이비붐세대 가계는 투자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실물자산의 비중은 줄여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이비붐세대의 은퇴는 자산시장의 구조변화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임이 자명하다. 정부와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인구 고령화 추세에 적합한 장기금융상품과 부동산투자 상품을 개발해야 하고, 자산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인프라 개선과 더불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개인과 가계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안정적인 현금소득 창출을 위해 금융자산의 비중을 늘리고, 투자의 영역을 확대하면서 그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경향신문(2007). 은퇴 준비 전혀 못해 60%. 2007. 7. 3.
- 2) 남상호·권순현(2008). 우리나라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빈곤 분석: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28(2), 3-32.
- 3) 매일경제(2008). 일본 단카이 세대 은퇴, 대응 어떻게? 2008. 2. 16.
- 4) 머니투데이(2012). 베이비부머 퇴직 본격화, 창업정책 만으로는 한계. 2012. 6. 28.
- 5) 박창균(2003). 고령화의 진전과 자산수요의 변화 -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과제(1). 한국개발연구원.
- 6) 방하남·신동균·이성균·한준·김지경·신인

- 철(2010). 한국 베이비붐세대의 근로생애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7) 보건복지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 플랜 2015. www.mw.go.kr
 - 8) 삼성경제연구소(2007a). 가계의 자산 및 부채 운용조사.
 - 9) 삼성경제연구소(2007b). 소비자태도조사 2007 4/4분기 부가조사 - 노후대비에 대한 가계조사.
 - 10) 서지원(2012). 베이비부머 가계의 경제구조 및 경제적 만족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41-66.
 - 11) 안승철·김년희(2001).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의 재정상태 분석. 영남대학교 지역발전연구, 73-97.
 - 12) 양세정·정지영(2010). 국내 재무설계전문가(FP: Financial Planner)를 대상으로 한 가계 재무지표값 조사. Financial Planning Review, 3(1), 109-137.
 - 13) 양정선(1997). 산술적 저량과 재무비율 측정을 중심으로 한 가계의 재정상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4) 연합뉴스(2012). 고령화로 주택시장 한파, 베이비붐 500만명 無연금. 2012. 6. 28.
 - 15) 이철용 (2006).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LG 경제연구원 보고서.
 - 16) 정성호 (2006). 중년의 사회학. 서울: 살림지식총서.
 - 17) 차성란 (2012). 베이비붐세대를 위한 미래 사회적 자본-베이비붐세대의 집단적 특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6(1), 67-83.
 - 18) 채은석·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
 - 19) 최재석 (2009). 한국의 가족과 사회. 서울: 경인문화사.
 - 20) 탁석산 (2006). 대한민국 50대의 힘. 서울: 랜덤하우스코리아.
 - 21) 최윤지·최현자(1998). 재무비율을 이용한 농촌 중·노년기 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83-96.
 - 22) 최현자·성영애·주소현·차경욱 (2012). 우리나라 중간소득층가계의 재무상태-소득지출상태표와 자산부채상태표-. Financial Planning Review, 5(2), 87-116.
 - 23) 최현자·이희숙·양세정·성영애 (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1), 98-121.
 - 24) 통계청(2007). 2006년 가계자산조사.
 - 25) 통계청(2010). 사회조사를 통해 본 베이비붐세대의 특징.
 - 26) 통계청(2011). 2011년 가계금융조사.
 - 2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 베이비붐 세대 은퇴 및 고령화에 따른 정책수립방향 연구.
 - 28) 한국일보(2007). 은퇴준비 왜 못하나 봤더니... 자식 때문에. 2007. 7. 3.
 - 29) 한국증권연구소(2007). 연령별 주식태도 조사.
 - 30) 함인희 (2004). 베이비붐세대의 문화와 세대경험. 나남출판
 - 31) 허은정·김우성 (2003). 베이비붐세대 가계와 X세대 가계의 소비지출 및 저축. 소비문화연구, 6(3), 21-40.
 - 32) 홍춘욱 (2007). 인구변화가 부의 지도를 바꾼다. 서울: 원앤원북스.
 - 33) Bryant, W. K.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 34) DeVaney, S.(1993). Change in household financial ratios between 1983 and 1986 : Were American households improving their financial statu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4, 31-46.
 - 35) Garman, E.T. & Fogue, R.E(1994). Personal

- Finance. 4rd ed. Boston : Houghton Mifflin Company.
- 36) Griffith, R.(1985). Personal financial statement analysis: A modest beginning. In Langreher (Ed), The Proceedings of AFCPE, 123-131.
- 37) Lytton, R.H., Garman, E.T. & Porter, N.M.(1991). How to use financial ratio when advising cli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2, 3-24.

- 투 고 일 : 2012년 7월 1일
- 심 사 일 : 2012년 7월 9일
- 심사완료일 : 2012년 8월 23일